



기아차 '뉴 모닝'



GM대우 '마티즈'



현대차 '아반떼'

경차만 타도 1억원 번다

치솟는 기름값... 외관보다 연비에 관심

김성중(41·광주시 광산구)씨는 요즘 차를 바꿀까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충장로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김씨로선 최근 기름값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구식 중형차는 휘발유 1ℓ로 9km도 채 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름값 지출로 인한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는 가계부에 적힌 기름값만 봐도 분통이 터진다"며 "차의 외관이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연비가 가장 좋은 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량의 외관이나 크기 등을 선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연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소형차 티엔 절약=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공식 판매되는 모든 차량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은 현대차의 '베르나 1.5'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경유를 사용하는 VGT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ℓ당 17.4km를 달릴 수 있다. 이는 기아차의 '프라이드 1.5'(16.9km)를 근소한 차이로 제친 것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기름값이 가장 적게 든다.

'베르나'는 3월 현재 유가를 적용해 연간 2만km를 주행할 경우 연간 170만원의 기름값이 든다. 반면 5천cc급 쌍용차 '체어맨 W'는 연비가 ℓ당 7.3km로, 연간 기름값이 454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같은 기름값 격차는 장기적인 운행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평생 차량운전 기간을 35년으로 잡을 경우 '베르나'의 기름값은 5천950만원이지만, '체어맨

W'의 기름값은 1억5천890만원이 든다. 연비가 높은 소형차만 타도 대형차 운전자에 비해 1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아반떼 VGT 1.6'과 기아차 '세라토 VGT 1.6'도 각각 1ℓ로 16.5km, 16.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간 연비는 각각 179만원, 185만원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은 차량으로 분류됐다.

<경차 휘발유차 중 연비 돋보여> '제네시스' 대형차 중 최고 연비=기아차의 모닝과 GM대우의 마티즈 등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차도 연비가 뛰어난 편이다. ℓ당 연비는 16.6km로, 연간 기름값은 199만원 선이다.

2천cc급 모델 중에선 GM대우 '라세티 디젤'의 연비가 단연 돋보였다. 이 모델은 ℓ당 14.9km의 연비로, 연간 기름값이 200만원을 밑돈다.

또 중형차에서는 '로체 VGT 2.0'(13.5km/ℓ)의 연간 기름값이 219만원으로, '쏘나타 VGT 2.0'(221만원)와 비슷한 연비를 나타냈다.

대형차 중에서는 지난 1월 출시된 현대차 '제네시스 3.3'이 10.0km/ℓ로 배기량 대비 연비가 가장 우수했다. 이밖에 ▲'SM7 2.4'는 9.8km/ℓ ▲'그랜저 2.7' 9.4km/ℓ ▲'오피러스 3.3' 9.0km/ℓ ▲'에쿠스 3.8' 7.9km/ℓ ▲'체어맨H 3.2' 7.8km/ℓ 등이었다.

한편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은 르노삼성차 'QM5 2.0'의 ℓ당 연비가 12.8km로 가장 높았으며, ▲'스포티지 2WD 2.0'(12.6km/ℓ) ▲'투싼 2WD 2.0'(12.6km/ℓ) ▲'싼타페 2WD 2.2'(12.5km/ℓ)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프라이드'



GM대우 '라세티'



현대차 '베르나'



혼다 '시빅'

수입차

하이브리드·경유차
'고연비 차' 독식

수입차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유차 '고연비 상위 20위'를 싹쓸이 했다.

특히 혼다코리아의 '시빅 하이브리드'는 ℓ당 연비가 23.2km에 달하면서 국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가운데 가장 연비가 높았다. 배기량은 1천339cc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모두 163대가 팔렸다.

2천cc급 모델 중에선 폭스바겐의 '골프 2.0 TDI'의 연비가 ℓ당 15.7km로, 경제성이 높은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 모델은 연비가 좋으면서도 가격은 3천만원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푸조는 '307SW HDi'와 '407 HDi 2.0' 등을 앞세워 고연비 차량 선두권에 자리매김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의 'C220 CDI 아방가르드'(12.9km/ℓ)가 돋보였다.

2천500~3천cc급 수입차 중에선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 '재규어 2.7 디젤' 등이 연료 효율이 좋은 차종으로 분류됐다.

/최경호기자 squeeze@



폭스바겐 '골프'

■차종별 연비 및 배기량

국산차					수입차						
모델명	제조사	연비 (km/ℓ)	배기량 (cc)	최고속력 (km/h)	모델명	제조사	연비 (km/ℓ)	배기량 (cc)	최고속력 (km/h)		
베르나 1.5	현대차	17.4	1,493	112	24.5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23.2	1,339	94	12.3
프라이드 1.5	기아차	16.9	1,493	112	24.5	골프2.0 TDI	폭스바겐	15.7	1,968	140	32.6
모닝 1.0	기아차	16.6	999	64	8.8	307SW HDi	푸조	14.4	1,997	136	32.0
마티즈	GM대우	16.6	798	52	7.3	407 HDi 2.0	푸조	14.3	1,997	138	32.6
아반떼 1.6	현대차	16.5	1,582	117	26.5	파사트2.0 TDI	폭스바겐	13.7	1,968	140	32.7
i30 1.6	현대차	16.5	1,582	117	26.5	미니쿠퍼	미니	13.7	1,598	120	16.3
세라토 1.6	기아차	16.0	1,582	117	26.5	S80 DS	볼보	13.0	2,400	185	40.8

(제4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380,961,507,547	I. 유동부채	78,740,888,563
(1) 당좌자산	246,719,904,247	1. 매입채	21,139,73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272,161,268	2. 분양선수금	4,026,522,372
2. 단기금융자산	31,454,644,786	3. 단기차입금	40,537,642,213
3. 매도가능증권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4. 분양미수금	38,479,661,635	5. 예수	114,584,890
5. 단기대여금	128,268,592,519	6. 부가세예수금	-
6. 미수수익	8,644,987,710	7. 예수보통금	-
대손충당금	△389,611,628	8. 미지급법인세	26,118,618,490
7. 부가세대금	7,289,513,286	9. 미지급비용	3,788,370,840
8. 선급비용	3,121,088,489	10. 미지급금	4,136,010,020
9. 선급판매원가	25,910,470,814	II. 고정부채	257,591,924,280
10. 선급법인세	-	1. 장기차입금	257,580,000,000
(2) 재고자산	134,241,603,300	2. 퇴직급여충당금	11,924,260
1. 미완성주택	2,745,561,597	부채총계	336,332,812,823
2. 미완성용지	39,929,456,822	자본	300,000,000
3. 용지	91,566,584,881	I. 자본	300,000,000
II. 고정자산	20,000,000,000	II. 자본잉여금	64,328,694,724
(1) 무가자산	20,000,000,000	1. 처분이익잉여금	64,328,694,724
1. 매도가능증권	20,000,000,000	자본총계	64,628,694,724
자산총계	400,961,507,547	부채와자본총계	400,961,507,547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3월 29일

지에스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재순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4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

(제16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23,636,411,856	I. 유동부채	26,956,754,446
(1) 당좌자산	120,958,993	1. 단기차입금	3,993,403,2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78,549,894	2. 미지급금	12,743,500,000
2. 매도가능증권	420,000	3. 주주인출원금등기부	0
3. 업무대여금	23,800,000	4. 분양선수금	2,645,481,081
4. 부가세대금	17,037,939	5. 예수	661,260
5. 선납법인세	135,000	6. 부가세예수금	0
6. 미수수익	1,216,160	7. 가수	0
(2) 재고자산	23,139,804,658	8. 미지급비용	373,708,862
1. 완성주택	11,722,459,226	9. 유동성장기차입금	7,200,000,000
2. 미완성주택	11,417,345,432	II. 고정부채	3,720,580
3. 용지	375,648,205	1. 장기차입금	0
(3) 기타유동자산	116,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3,720,580
1. 선급비용	259,648,205	부채총계	26,960,475,026
II. 고정자산	35,000,000	자본	330,000,000
(1) 무가자산	35,000,000	I. 자본	330,000,000
1. 예치영입보증금	35,000,000	II. 이익잉여금	(3,618,600,172)
자산총계	23,671,411,856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618,600,172)
위와 같이 공고함.		(당기손익: △1,765,080,063)	
		III. 자본조정	(2,463,000)
		자본총계	(3,289,063,172)
		부채와자본총계	23,671,411,856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3월 29일

동국건설(주)

대표이사 김선웅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이구학

(제7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165,470,752,572	I. 유동부채	148,748,129,423
(1) 당좌자산	72,085,578,861	1. 매입채	30,586,583,68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91,390,352	2. 분양선수금	16,506,479,848
2. 단기금융자산	3,658,729,765	3. 단기차입금	63,188,668,138
3. 매도가능증권	56,373,709,780	4. 유동성장기차입금	288,841,917
4. 분양미수금	2,645,481,081	5. 미지급비용	9,379,614,199
5. 예수	661,260	6. 예수	10,706,660
6. 부가세예수금	0	7. 부가세대금	97,244,980
7. 가수	0	8. 미지급금	190,000,000
8. 미지급비용	373,708,862	9. 유동성장기차입금	28,500,000,000
9. 유동성장기차입금	7,200,000,000	II. 고정자산	93,885,173,711
(2) 재고자산	5,008,321,048	1. 미완성주택	4,908,728,215
1. 미완성주택	6,577,136,986	2. 미완성용지	14,861,709,328
2. 미완성용지	177,025,280	3. 용지	73,614,736,168
3. 용지	4,265,650	부채총계	192,899,795,203
II. 고정자산	8,924,147,601	자본	148,748,129,423
(1) 무가자산	8,924,147,601	I. 자본	148,748,129,423
1. 매도가능증권	7,895,866,025	1. 자본	2,500,000,000
2. 장기금융상품	1,028,281,576	II. 이익잉여금	2,500,000,000
자산총계	174,394,900,173	II. 결손금	△21,004,895,030
위와 같이 공고함.		1. 처분손실	△21,004,895,030
		(당기손익: 12,300,955,973)	
		자본총계	△18,504,895,030
		부채와자본총계	174,394,900,173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3월 29일

미래알에이씨(주)

대표이사 박선우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